

[영업비밀침해소송] 최근 미국 영업비밀침해분쟁 뉴스: Facebook vs Bladeroom \$300 Million 지급조건 화해 + Fera Pharmaceuticals vs Akorn Inc. \$100 million 지급조건 화해



최근 미국 영업비밀침해분쟁에서 나온 뉴스를 추가로 소개합니다. Facebook에 Data Center 구축에 관해 기술정보를 제공하였던 BladeRoom Group Ltd. 회사가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양사는 지난 4월 9일 페이스북에서 BladeRoom Group Ltd.에게 \$300 Million (약 3천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는 뉴스입니다.

다음으로 제약회사 Fera Pharmaceuticals에서 위수탁제조 납품계약을 맺었던 Akorn사를 상대로 계약상 제공하였던 erythromycin 생산기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소를 뉴욕주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Fera사는 위수탁계약상 Akorn에 제공하였던 생산기술정보

를 Akorn에서 무단으로 사용하여 독자적 경쟁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였습  
니다. 당사자들은 지난 2월 예정된 소송의 trial 직전에 \$100 million (약 1천억원)을 지급  
하고 모든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공계 변호사/변리사, 영업비밀, 전직금지, 형사고소, 민사가처분, 본안소송

---

T. 02-591-0657 E. [kkh@kasanlaw.com](mailto: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http://www.kasanlaw.com)